



GM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21일 군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중단 및 폐쇄 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한국GM 협력업체(11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27일 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통과 가능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소재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탄소소재법은 이에 따라 27일 예정인 법사위를 거쳐 28일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

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탄소산업을 지자체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육성해온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탄소산업은 10여년 전부터 전북도 주도로 꾸준히 육성·발전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등 2006년 제로수준에서 불과 10여년만에 선진국 추격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미래 총분한 먹거리가 되고 특화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10여년전부터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쳤으며 2016년부터 집중 노력한 결과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또한 탄소소재법 제정,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에서 일으킨 산업이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까지 도약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도는 어느 때보다 정치권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여야를 불문하고 정당별로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설득할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는 탄소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상용화 촉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탄소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의 시장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와 병행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소소재법이 시급히 개정되어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장애인 취업 훈련센터 통합 설치

맞춤·발달훈련 등 2곳

전북도는 올해 안에 장애인 취업을 원하는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 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이 훈련받아 취업할 수 있는 '발달장애이훈련센터' 등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2개 센터를 통합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2개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지부와 협조 체계로 공단본부 등을 방문하고 기존에 설립된 센터 등을 견학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지사업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장애인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구인수요와 맞춤

형으로 기술을 연마한 후,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으로 국비 17억원을 확보했다. 발달장애이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으로 취업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국비 19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모두가 참여하여 졸업 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본 센터는 3월중에 공사를 착수해 11월중에 준공, 운영될 예정으로 전북도교육청, 전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지부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설치장소와 운영인력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설 소포우편물 106만여건 완벽소통

전북지방우정청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21일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인 2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동안 총 106만여건의 소포우편물을 완벽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5톤트럭 2천3백여대 분량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가장 많이 소통한 날은 2월 5일로 평시 하루 물량의 2배 수준인 14만여건에 달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설 소포기간에 특별소통 대책반을 설치·운영, 3천여 직원과 140명의 소포보조 인력을 투입, 하루 평균 1,000여대의 차량 및 자동이륜차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여 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했다.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총 58만여건의 소포를 접수·발송, 가장 많이 접수한 날은 5일로 7만7,000건을 접수·발송했고 같은 기간 소포 배달건수는 총 48만건으로 가장 많이 배달한 날은 6일로 6만5,000건을 배달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자원봉사 '긍정' 가치 대중화

전주자봉센터 5월까지 '해피볼런티어' 캠페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자원봉사의 긍정적 가치를 대중화하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이 시작된다. (사)전주자봉센터는 '2018년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오는 5월까지 카카오톡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같이가지 with Kakao'와 함께 자원봉사의 가치와 감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해피볼런티어'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피볼런티어' 캠페인으로 개설된 모금함 프로젝트는 ▲평창을 리픽은 즐겨요! 자원봉사자의 수고에 감사해요!((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푸른 군복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철사모봉사단) ▲장애인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전주시자원봉사센터) ▲어려운 이웃께 보일러 보드라는 우리는 고등학교생입니다(나주공업고등학교) ▲여러분들은 '수화'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조용한수다공연단)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우리 동네 해결사, 홀리스 봉사자가 간다(성동구자원봉사센터)이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같이가지 with Kakao' '해피볼런티어 캠페인' 페이지에서 우수한 자원봉사자 이야기에 대해 직접기부(기부버튼을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응원, 공유(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댓글 작성을 통해 참여기부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캠페인 모금함은 카카오톡에서 참여기부금을 두 배씩 지원하여 응원, 공유, 댓글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1,2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모금액은 지역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비로 운용된다. 전주자봉센터는 캠페인 기획의욕 이사장은 "연령과 지역을 망라해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원봉사 우수사례는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V-Korea' 홈페이지, 자원봉사 아카이브에서 만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 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북도, 상생협의회 열어 공공기관 특성 살린 지역발전 사업 발굴·추진

전북도는 21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12개 이전기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2018년 기관별 업무를 공유하고 이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제안 및 열린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정주여건 조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전북 혁신도시가 이전기관의 특성을 연계한 농생명, 금융도시 등 지역 내 성장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이전공공기관에게 이전기관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 및 시군과 함께 추진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제안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전북도와 이전기관은 2018년도 기관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기관별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농촌진흥청은 안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스마트 도시재생, 빅데이터 활용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으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역연계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에서는 교통,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관련 총 4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추진중(완료 29, 추진중 15, 장기검토 3)이며, 이날 제안된 지역연계사업은 실무협의회를 열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전북 대도약의 중심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책마련에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